

녹색에너지연구원, 여수산단 RE100 협의체 발족



(재)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 황규철)이 지난 19일 여수산단 RE100 수요 기업 10개사와 여수산단 RE100 협의체를 발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에너지, (주)대동, 제일기술산업, ㈜일렉트로닉스, 해인기업(주), 승산팩, (유)중앙엔지니어링, ㈜컴엔텍, ㈜하이텍, 유니온캡 등이 참여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적극 협력하고, 전력수급계약(PPA) 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전기사용량 데이터, 자료 등을 녹색에너지 연구원에 제공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단공 광주본부·첨단 ESG 커뮤니티 사랑의 헌혈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0일 '광주첨단 ESG확산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커뮤니티'와 '산단 입주기업'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활동을 펼쳤다. (사진)

광주첨단 ESG 커뮤니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산단 내 14개 유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 정화활동과 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단체헌혈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버스를 지원받아 산단공 광주본부, 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커뮤니티 기관과 광주첨단경영자협의회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김익성 기자 mskim@

지스트 송영민 교수

'해림 광자공학상' 수상



광주과학기술원(총장 임기철·이하 지스트) 송영민(사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광학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해림(海林) 광자공학상'을 수상했다.

2016년 지스트에 부임한 송 교수는 광자 구조 연구에 필요한 마이크로 광학계 및 이미지 소자를 연구 중이며 동물의 시각구조를 모사해 기존 카메라가 갖지 못하는 특수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초광각 곤충 눈 카메라'는 2013년 대한민국이 가장 주목한 '10대 과학기술 뉴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해림 광자공학상은 광섬유 제조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자 지스트 제1호 교수인 고(故) 백운출 교수가 한국광학회 발전을 위해 기부한 기금으로 운영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민협치진흥원, 서구와 온마을이음학교 협약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이 지난 20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광주시 서구와 '촘촘한 지역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온마을이음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업무협약은 시교육청을 비롯해 시민협치진흥원, 서부교육지원청과 광주 서구가 함께 온마을이음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자체-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구축 ▲학생이 배운 것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특색있는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 김영학 주임, 조혈모세포 기증

광주시체육회 무등팀 소속 김영학(사진) 주임이 지난 19일 골수염유증을 진단받은 위중한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김영학 주임은 지난 2016년, 평소 꾸준히 해왔던 헌혈 참여차 방문한 광주 헌혈의 집에서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관계자의 말에 그자리에서 기증 접수 의사 표시를 했다. 그로부터 7년 후인 지난해 4월, 유전자 일치하는 수혜자가 나타났다. 그는 연락을 받은 그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건강 상태 검진, 조혈모세포 촉진제 투여, 말초 조혈모세포 채집 등의 과정을 거쳐 기증을 마치고 현재 회복 중이다.

김 주임은 "주변에 헌혈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며 "기증받은 환자분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국립목포대 유준희 학생

한국관광학회회장상 수상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유준희(사진·관광경영학과 4년)씨는 최근 '한국관광학회회장상'을 수상했다.

'한국관광학회회장상'은 (사)한국관광학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나가 한국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유준희 씨는 전공 평점과 어학성적에서 두각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텐트 중점대학 사업 학생연구원, 하계 해외문화 장학연구팀장, 팝업스토어 '도립 1946 학생들을 위한 호텔'의 리테일링 대표 등 다양한 교내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생방송 오늘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55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10	0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인간극장 스페셜		
11		40 영화가 좋다(재)		
12	00 KBS 뉴스 12	5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12 MBC 뉴스 25 밤에 피는 꽃(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재벌X정사(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55 2시 뉴스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국회 대정부 질문 (비경제분야)	00 KBS 뉴스타임 15 코드네임(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	
3				
4	00 시사간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00 KBS 뉴스 5 10 국민의 힘 정강정책연설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거명술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15 다이노 파워즈 2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0 보통의 존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35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생방송 연속복권 720+ 10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00 시사토론 시사용광로	00 국민참여재판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KBS 뉴스라인W	15 반려동물극장	00 구해줘! 홈즈	2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40 문화콘서트 난장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스페셜
12	00 KBS 중계식	15 고려 거러 전쟁(재)		50 상상! 고향별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곰끼와 처음 수학(재)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레인보우 버블즈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명의	19:00 한국의 돌레길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15 시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인간과 바다(재)
07:30 얼마 까투리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45 레인보우 버블즈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태극 북부 인생길 기행 -대찬 인생, 소박한 행복>
08:00 당동당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20 곰끼와 처음 수학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동장군아 물렀거라 4부 모락모락 두치레 밤상>
08:5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귀하신 몸(재)
09:05 그린조끼 구조대(재)	17:00 페퍼 피그	22:45 다큐멘터리K
09:2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7:10 오구오구 내 새끼(재)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포털리 쇼츠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2일(음 1월 13일 丙辰)

<p>36년생 송두리째 버리느냐 아니면 끌어안고 함께 가느냐 하는 중대기로 놓여 있다. 48년생 기회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60년생 소폭적인 이동수가 비칠 뿐이다. 72년생 조정은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이다. 84년생 불필요한 것이 상대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리라. 96년생 무리가 따른다면 행하지 않아야 옳다. 행운의 숫자 : 45, 91</p>	<p>42년생 제사 덕분엔 이바를 먹는 격이로다. 54년생 누구하고든지 원칙적으로 대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정확해야만 한다. 66년생 빈틈을 보여주는 아니 되므로 조건을 남들이 살펴보자. 78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90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02년생 파격적인 형태로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43, 79</p>
<p>37년생 밤심하다가는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느니라. 49년생 짐작을 펼쳐보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61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 73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복잡해진다. 85년생 부실함과 혼란이 보이는 과도기로다. 97년생 순식간에 상호 간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중심은 흔들리지 마라. 행운의 숫자 : 19, 88</p>	<p>43년생 무의미했던 것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리라. 55년생 형극의 재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원인부터 인식하라. 67년생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야만 가치가 잡힐 것이다. 79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91년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한다. 03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9, 51</p>
<p>38년생 수익은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다. 50년생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62년생 분명한 입장에 서서 철저대로 이행함이 순리이다. 74년생 외면보다는 내용에 치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86년생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98년생 관행에 얽매어서 남비를 하고 있지는 않나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9, 61</p>	<p>44년생 지우치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하리라. 56년생 검은 구름 사이로 밝은 햇살이 보인다. 68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흥사를 비켜 갈 수 있다. 80년생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심정을 이해해 주는 이가 그 어디에 있겠는가? 92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04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기도를 잡아보자. 행운의 숫자 : 09, 74</p>
<p>39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51년생 그림의 딱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63년생 초심으로 밀어붙이면 틀림없이 성사된다. 75년생 학수고대해 오던 결과가 도출될 것이니라. 87년생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차차 적응하게 되리라. 99년생 일단 안정을 시키고 나서 모색함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06, 77</p>	<p>45년생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57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수도 있으니 작별 차리고 일하라. 69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1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회복할 수 있다. 93년생 체면을 의식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 05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03, 58</p>
<p>40년생 실행되고 있는 바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52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라. 64년생 상충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76년생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88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혜롭다. 00년생 역지사지해보면 답이 나온다. 행운의 숫자 : 42, 84</p>	<p>46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 뒤야만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5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70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되겠다. 82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른다. 94년생 예견했던 바가 실제로 발생하겠다. 06년생 가벼운 현상이 불과하니 그다지 의식할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47, 80</p>
<p>41년생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라. 53년생 일반성보다 특수성의 발현의 의미가 있다. 65년생 정도를 조절하면서 현안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77년생 실용적이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알라. 89년생 지금까지는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더 나아가야 할 길목이다. 01년생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18, 64</p>	<p>35년생 공통적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47년생 기회가 왔으니 앞뒤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59년생 없었었을 때에라야 귀중한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이니라. 71년생 순조로움을 타고 힘차게 진행되는 도량이니라. 83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95년생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운의 숫자 : 23, 71</p>